



요약

사실

“평화의 여왕과 함께 하는 성탄”.

양성 여정

불가능을 향한 부르심 2: 모든 직업과 사명에는 빛과 어두움이 있다.

나자렛. 하느님의 모든 가족

3. 예수의 거룩한 이름.

겸손하고 가장 뛰어난 피조물

통합생태학의 스승이신 마리아와 함께 걷기

4. 마리아 봉해진 우물.

가족의 연대기

- 에콰돌- 제 12차 아드마 국가대회.

- 제 33차 아드마 마리아 대회 - 주제 - “성소와 사명으로의 교육”.

- 남아시아 살레시오 가족 대표 모임.

-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 2024년 파티마(포르투갈).

- 월간 기도 지향.

사실

“평화의 여왕과 함께 하는 성탄”

P.1

친애하는 ADMA 회원 여러분,

P.3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세 개의 다른 대륙에 있는 살레시오 가족의 다양한 그룹에 속한 관구 대표, 영적활성자, 지역 협력자들과 함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미국, 아시아, 유럽. 돈 보스코 가족을 구성하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은, 형제애와 양성, 친교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레시오 카리스마라는 위대한 선물을 받았으며, 이는 오늘날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면서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육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회는, 여러 지역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많은 곳에서 새로운 그룹들이 계속 탄생하고 있으며, 활동을 강화하여, 성모님과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복된 성사로 전파하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필요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ADMA는 돈 보스코가 설립한 우리 가족의 평신도 단체로서, 성모님처럼 돈 보스코가 우리에게 남긴 특별한 스타일로 성화와 사도직의 길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P.6

P.8

P.9

P.10

P.10

P.11

P.12

또한 2 주 동안 나는, 세계의 많은 곳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상황을 형제, 자매, 평신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고, 폭력, 전쟁, 학대, 살인, 자살, 복수라는 현실을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상적인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러한 현실에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평화의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12 월에 **우리 모두의 가정과 환경이, 평화를 구축하는, 평화의 성탄을 보낼 수 있기를 초대하며,** 성모 호칭기도에 대한 묵상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서를 통해 예언자들에게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의 시대에 정의가, 큰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71,7) 라고 말합니다. 전례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진리와 생명의 왕국, 거룩함과 은총의 왕국,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메시아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는 평화의 여왕이라고 불릴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또한 성모님은 ‘자비의 여왕이자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전쟁은 항상 많은 피와 불, 죽음과 고아, 기근과 역병,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증오와 원한을 불러일으키기에, 이러한 악의 희생자를 보며 성모님의 자비로운 마음은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그의 전구를 통해 평화의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전구해 주십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면서 그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며, 그의 통치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9,5-6).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즈카리아는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알리는 노래에서 자신의 사명이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루카 1,79)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 바오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 이십니다**”(에페 2,14)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면 마리아는 평화의 어머니입니다. 성모님의 동정녀 탄생은 평화의 탄생이었습니다.

성 바오로도 갈바리아에서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콜 1,20) 또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마리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리아는 죄책감이나 죄의 물뿤이 없이, 그리스도에 의해 가장 완벽하게 구원되고 평화를 얻은 피조물이며, 갈바리아에서 아들의 피와 함께 자신의 슬픔을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며, 그리스도의 평화의 전파자로서 특별한



방식으로 참여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풍부하며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가져다주시는 평화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이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으며, 복음적 자세를 우리 안에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묵상하고 관상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성경 외에도 역사를 통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이 핏빛으로 얼룩졌을 때,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복되신 하느님의 어머니의 전구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성모호칭기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 기도는 수많은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매일 바쳐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평화의 여왕으로 그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께서는 1917년 5월 5일 전 세계의 모든 주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선의 저자이신 하느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섭리의 사랑스러운 계획을 통해 아담의 가난한 후손들에게 베푸시려는 모든 은총을 성모님의 축복받은 손으로 분배해 주시니, 우리는 거룩한 하느님의 어머니께,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지금 가장 고통받는 자녀들을 위해 간구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전구를 청하십시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가장 고귀한 성전으로부터 가장 작은 성당에 이르기까지, 왕궁으로부터 가장 가난한 오두막집에 이르기까지, 충실한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자비의 어머니이시며 은총이 가득하신 능하신 동정녀께서 일하십니다. 피비린내 나는 들판과 바다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기도[“**평화의 여왕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와 어머니와 부인들의 고뇌에 찬 외침, 무고한 어린이들의 통곡소리, 모든 선량한 사람들의 한숨소리가 성모님께 닿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의 다정하고 간절한 전구로, 어지러운 이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세대가 성모님에게 전구를 청하는 자는 반드시 이끌어주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인 1917년 5월 13일, ‘**평화의 여왕**’께서는 교황 베네딕토 15세와 온 교회의 부름에 응답하여 파티마에서 코바 다 이리아에서 놀고 있던 세 명의 어린이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바로 오늘과 같은 13일, 이 시간에, 6개월 계속해서 이곳에 와달라고 너희에게 부탁하러 왔다.... 그분은 죄에 대한 속죄의 행위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그들이 받게 될 모든 고통을 견디어내면서,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예, 저희는... 세계 평화와 전쟁이 끝나게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매일 묵주의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우리는 성모님께서 인류의 선을 위해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치는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생명의 하느님께 우리

마음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시고, 갈등과 긴장이 사라져 창조주의 평화로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간청하는 기도로 예수님의 탄생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의 성탄을!

아드마 프리마리아 회장, 레나토 발레라
아드마 프리마리아 영적활성자, 알렉산드로 구에바라

양성 여정

불가능을 향한 부르심 2: 모든 직업과 사명에는 빛과 어두움이 있다

1. 성소와 사명: 신비의 존재

살레시오 선교의 기원이 되는 9살 때의 꿈에서 요한은, 성경의 모든 성소 이야기, 특별한 봉헌의 이야기와 같은 체험을 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불가능해 보이는 것,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계산의 논리와 무상의 논리, 적은 자원의 인간과 하느님 은총의 풍부함 사이의 불균형 때문에 **라움과 혼란을 겪습니다. 가능과 불가능의 변증법은 명료함과 모호함 사이의 변증법**으로 경험되며, 따라서 신앙의 전체 주제와 **식별**의 필요성은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느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1요한 4,1), “선입견 없이 이 모든 것을 지키고, 무슨 일이든 편견에 따라 하지 마십시오”(1티모5,21)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일에서 이해한다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이며, 첫 번째 단계는 하느님의 뜻을 인식하고 순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리라”고 그분은 어린 요한에게 사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의 신비가 인간에게 드러날 때마다 이 두 가지 점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룩한 영감은 우리보다 더 크고 우리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기원과 내용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 꿈에서 요한은 누가 그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게 요구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고 싶어합니다. “당신이 누구이기에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미스터리한 두 인물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가 하느님의 섭리에는 한계가 없는 데도,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하느님의 신비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초자연적인 것에 맡기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만 머무는 태도라면, 어떤 영적 길도 시작되지 않으며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섭리에 제한을 두게 된다면 그의 가능성을 크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마태오 복음에서는 두 번이나 다음과 같이 반복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마태 13,12, 25,29). 이런 이유로 돈 보스코는 그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시간을 하느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느님께 “만약에” 또는 “그렇지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느님의 꿈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영적 충동과 회심이 지나치게 물질적이거나 너무나도 정신적인 이유들에 의해 약화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자면, 자신의 ‘내면’을 잘 보는 것은 관찮지만, ‘자기 바라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하느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기도를 통해 받아들이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자기애적인 나르시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린 요한은 이런 초자연적 표징 앞에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실제로 9살의 꿈에서 요한은, 점점 더 커지는 마음의 긴장감을 느낍니다. 이는 영감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급히 질문합니다. “제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아저씨는 누구시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식을 연마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런 식으로 제게 말씀하시는 아저씨는 대체 누구세요?” 이 질문을 통해 그는 자신의



임무와 보낸 사람의 신원, 명령의 타당성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답은 미스터리한 상황을 바꾸지 못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행동 방식의 변화를 요구** 합니다.

변화 요구로 인한 긴장은 내부 저항으로 변해 부적절함 (“종교에 대해 말할 능력이 없는 가난하고 무지한 아이”)과 이해의 어려움(“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함”)이라는 이중적 잣대로 첫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순명과 지혜/연마가 필요합니다.** “너에게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이기엔 너는 순명과 지혜를 연마함으로써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해 언급한다.** 알려 주시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몰라 알아듣게 해달라고 한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신앙으로 순명하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하느님을 아는 가장 옳은 길이며, 하느님의 약속을 받아들임이고, 미래에 완성될 빛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역설적입니다. 이는 신비를 표현하는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본질적으로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순명으로써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A. Bozzolo).

2. 신앙 안에서의 순명

순명 - 이는 자녀다운 순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마리아, 성인 성녀, 소속감과 감사, 신뢰와 내어 맡김, 충실함과 협력은 부르심 - 사명의 측면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의 뜻과 하나가 되고, 인간의 지성이 하느님의 지혜로 밝혀질 때,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게 되며, 열매를 맺는 관계를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느님의 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드러나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행한 일은 바로 우리 안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은총으로 사는 삶보다 가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랑과 기쁨, 기도의 효과와 행위의 열매가 있게 된다(요한 14,20; 15,4; 15,5; 17,21-22 참조).

신앙 안에서 순명할 때 **불가능도 가능하게 됩니다.** 산같이 높은 교만을 떠나보내게 하고, 모든 질병을 낫게 하며,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해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나무더러 ‘뽕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루카 17,6). 순명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요한이

꿈에서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그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함께 이루어가는 사명은, 완전히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것이더라도, 우리를 위험에 빠트리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서 가능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증언은 모두 일치합니다 (히브 11,1~40 참조).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에서처럼, 불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동정녀께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하여 이 세상에 그분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는 구원이, 제자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이 못할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나?”라는 대답을 듣습니다(창 18,14).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루카 1,37)라고 말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라도 하느님께는 가능하다”(루카 18,27)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최고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으로부터 승리함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의 순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능한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되신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써 우리 인간 가능성의 한계를 허물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가능성을 향해 모든 믿는 이들은 이를 굳게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무상함의 틀을 내부로부터 열어 놓은 주님의 강생하심과 부활은,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실제적인 것이며, 우리가 어떤 주저함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순명은 언제나 옳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성부께로 향하는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가 순명이므로,**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제일 중요한 요소도 순명이어야 합니다. 꿈 속에서 존귀하신 분께서는 아이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듯이 어린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이기 때문에 너는 순명과 지혜의 연마로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은 자녀가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하고 싶지 않아서 도전하기를 꺼려할 때 부모가 “순명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권고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아들이 불가능의 비결인 순명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요한 4,34).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요한 8,29).

순명이 가장 좋은 것인 직접적인 이유는, 하느님께서 **리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변화시키실 수 있어야만** 우리를 위한 그분의 꿈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좌절과 예상치 못한 사건에 직면할 때 우리는 대개 본능적이고 충동적이며 미성숙하고 심지어 부도덕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부당한 일에 대해 “총알같이”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출애 2,11~15)와 예레미야(예레 1,4~9)는 어린이와 같은 사고를 넘어서기로 했고, 베드로는 배반의 좌절, 수치를 극복했으며(요한 21,15), 거둬들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루카 5,5), 그리고 “박해자요 폭력자”(1티모 1,13)였던 바오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는 법”(1코린 9,22)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강하고 충동적인 요한 보스코도 **폭력이 아닌 자비로 악을 제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순명해야 했습니다. “주먹다짐으로 하지 말고 온유와 사랑으로 하여라.” 순명의 열매는 참된 내적 변화이며, 이는 우리가 일시적인 관대함이나 내게 주어진 은총으로 사물을 변화시키려는 기대를 극복하고, 역사와 세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방식**과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의 순명은 언제나 **모험**이 따른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자신의 힘에 계속 의지하거나 자신의 한계에 대해 절망하려는 위험**입니다. 이는 어린 요한이 감수하지 않았던 위험입니다! 어린 요한은 비범한 육체적 활력, 탁월한 기억력, 리더십 자질, 사랑의 시선, 하느님을 향해 열린 마음 등 모든 측면에서 인간적인 재능을 타고났지만, 그 자신도 자신의 사명이 불가능한 부르심임을 인식했습니다. 보졸로 신부는 다음과 같이 이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불가능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타고난 적성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경계 너머에 있는 불가능의 영역의 열림입니다. 이는 성서학적으로는 하느님의 공간입니다.”

3. 믿음의 지성

우리는 순명은 지성을 반짝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며 어둠의 수준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현재와 미래의 빛을 제공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의 부적절함/불가능함을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순명으로 보증됩니다. **사명은 아무리 힘들고 모호해 보일지라도 수행됨으로써 이해됩니다.** 이것이 모든 성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꿈에서 **가능과 불가능**의 변증법이 **명확함과 어둠**의 변증법과 얽혀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꿈에서 어린 요한의 영혼의 혼란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 너무나 빛나서 시선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얼굴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는 특히 신비주의자와 신비주의자들의 삶에 존재하는 위대한 소명의 전형적인 변증법이며, **어두운 빛과 빛나는 어둠**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분의 신비의 깊이가 훨씬 더 깊습니다. 이 역설적인 체험의 기초에는 파스카 신비의 두 얼굴이 있습니다. 파스카 신비에는 항상 **십자가와 기쁨**, 십자가 위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번째 복음서에서 요한은 두 가지 높이에 대해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빛이 너희 가운데에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걸어가거라.”(요한 12.35)

또한 꿈에서 요한은 빛나는 주님의 얼굴에 더하여 빛나는 말씀의 선물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요한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설명하지만, 요한을 혼란스럽고 겁에 질리게 만듭니다. 늑대가 양으로 변신한다는 매우 명확한 이미지도 있지만, 이는 더욱 큰 혼란을 가져옵니다. 더구나 순명해야 한다는 설명도 없고, 순명을 해야 한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삶은 살기 전에 또는 살아 보지도 않고 이렇게 되리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정의는 너무나도 크시고, 그분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신앙 안에서 순명을 통해서만 삶 전체가 명확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빛과 어둠의 변증법, 그리고 이를 명확하게 하는 실제적인 형태는 신앙 행위의 신학적 구조를 특징짓습니다. 사실 믿는다는 것은 빛나는 구름 속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름은 사람에게 따라야 할 길을 보여 주지만, 시선으로 그 길을 지배할 가능성은 없애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유는, 믿음으로 “가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조건 아무렇게나 움직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차 상속받을 곳을 향하여”(히브 11,8)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약속의 땅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걷고자 하는 의지가 그 땅을 존재하게 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요한에게 한 말 -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 그러므로 단지 자비로운 어머니의 격려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가장 밝은 빛인 신앙 안에서 걸어가는 봉헌된 자입니다.”(A. Bozzolo).



꿈속의 빛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1. 내 신앙의 온도 는 얼마입니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믿는 자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곡식 한 알의 참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신앙의 어머니이자 스승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인생은 나에게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요구합니까? 하느님은 내 안에서 무엇을 이기고, 무엇을 무너뜨리고, 무엇을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2. 나는 하느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는 신앙의 빛과 어둠 받아들입니까? 나는 “내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까? 나는 비관과 낙담에 굴복하지 않도록 시련 속에서 끊임없이 인내와 희망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나자렛. 하느님의 모든 가족

3. 예수의 거룩한 이름

이전 묵상에서 우리는 성가정과 모든 성가정의 독창성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의 현존, 그분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성탄시기에 말하는 것처럼, 특히 클레멘스 7세가 원했고, 성 베르나르디노가 큰 사도적 활력으로 추진했던, 14세기부터 시작된 전례 축일의 제정과 함께, “예수의 지극히 거룩한 이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나자렛 예수

나자렛에서는 하느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불리웠습니다. 수세기 동안 기다렸던 예수의 이름이 나자렛에서 처음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마리아의 순결한 입술과 요셉의 정의로운 입술에 의해 처음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느님의 명령에 의해 선포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먼저 - 세례자 요한의 경우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과 비슷합니다

-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루카 1,30) 그리고 요셉의 꿈에서 또 다른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마태 1,21)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일은 인간의 뜻이 아닌 신성한 영감에 의해, 즉 “성령의 역사로”(루카 1,35, 마태 1,20) 일어납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원하신 인간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인식하는 신성한 이름입니다!

노멘 오멘

고대 문화에서는 이름이 현실을 말해줍니다. 예수의 이름을 생각해 봅시다. 매우 감미로우면서도 동시에 매우 불편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 자체에는 매우 고통스러운 사명을 나타내고 예표하며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분의 이름입니다. 그분을 예수라 부르는 이유는 - 시므온이 어머니에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반대를 받는 표징”(루카 2,34)이며,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였듯이,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마태 1,21). 예수라는 이름은 실제로 “하느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고, 예수는 곧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의 이름은 하느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사명을 사셨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전통으로 성체와 교회의 벽, 전례 도구, 그리스도인의 무덤에 새기는 IHS 기호(lesous의 그리스어 약어)는 상징적 의미와 중요함,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법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힘은 익명으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인격적이며 정확한 그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필리 2.9),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는”(필리 2.10) 이름. 예언서와 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세상 모든 임금들이 당신의 영광을 경외하리이다.”(시편 101.16) 또한 베드로 성인은 오순절에 감동적인 첫 설교를 합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사도 4,12).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찬양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시편 112,1). 기도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과 축복, 경배와 감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께서 은혜의 모든 보화를 담아 주시고 분배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표현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1요한 3.23),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습니다(1요한 2.12).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요한복음 20.31) 그분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습니다(묵 22.4).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며(히브 13,15),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로마 1,5, 골로 3,37). 사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이름에 자신의 삶을 바치고(사도 15,26),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위와 용기로 가르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사도 5.41) 놀라운 일을 행하고(사도 8,12),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얻을 수 있음을 압니다(요한 16,23.24).

나자렛에서 우리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1. 예수님의 이름과 친해지기. 그 이름을 애정과 감미로움으로 발음하고, 자주 언급하여 그분 앞에 머물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살고 유지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련의 때에 담대함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2. 예수님의 이름의 구원 능력을 깨달으십시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악에 대항하는 댐을 쌓고, 유혹의 힘을 약화시키며, 하느님의 편에 서는 것이며, 원수를 물리쳐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름 자체에 퇴마의 힘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악마는 그 이름을 견디지 못합니다! 3.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의 위엄을 인식함과 함께 그분의 위엄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며, 더 빠르게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은혜의 활동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가장 뛰어난 피조물 - 통합생태학의 스승이신 마리아와 함께 걷기

4. 마리아 봉해진 우물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찬미받으소서』를 마무리하면서, 피조물에 대한 마리아의 보살핌에 전적으로 내어맡긴 241조를 마무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지혜로운 눈으로 보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실 마리아의 지혜로운 눈은 창조의 모든 요소에서 우리를 향한 하느님 사랑의 표징을 인식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생태학적 회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환경과 타인을 존중하고 돌보면서 하느님께서 당신 피조물 각자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부르심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함께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창조의 첫 번째 요소인 물입니다.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창 1장)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우주가 형태도 없이 황량한 어둠에 싸인 원시적인 물로 뒤덮인 덩어리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원시적 혼돈 속에서 하느님은 창조의 말씀으로 개입하셔서 세상을 낳으시고 마른 땅과 물을 분리시키십니다. 혼돈은 우주가 됩니다. 질서가 있고, 조화로우며,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주 가능한 세계, 즉 낮과 밤이 있고 계절이 바뀌는 세계, 초목으로 덮여 있고 수많은 생물이 살고 있는 세계는,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의 생각과 뜻 속에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막 잉태된 아직 형태가 없는 아이가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 있는 양수에 잠긴 채 어둠 속에서 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주 창조와 어머니 태중의 아기 잉태 사이의 비유는 성경의 시편 138편에서 채택됩니다. 시편 138편은 모든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창조적인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이며, 성경에 의하면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첫 만남이며 우주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모태입니다(예레 1,5).

출산은 어머니와 아이에게 수반되는 위험으로 인해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향해 행하시는 첫 번째 구원 행위입니다(시편 21,10-11). 해방이 곧 출애굽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사실 탄생의 위대한 장면입니다. 하느님께서 노련한 산파처럼 자기 백성을 죽음의 위험에서 해방시켜 새 생명을 주십니다(출애 14장). 그분은 새 생명을 물에서 육지로 끌어 올리십니다.

모든 인간이 비록 의식적 기억은 없더라도 물에서 태어나 물 속에서 자라며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성장할 때까지, 자궁 물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물은 임신 기간 동안 성장하는 아기와 아기를 돌보는 엄마 사이를 중재하는 요소입니다. 아가서가 여자의 자궁을 남자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근원에 비유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특히 4장 1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의 덕을 노래하며 그녀를 “봉해진 우물”로 정의합니다. 교부 시대 이래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에서 마리아의 풍요로운 동정성에 대한 시적인 묘사를 보았습니다. 즉, 그녀의 자궁은 아기 예수 외에는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봉해진 우물”입니다. 특별한 방식의 처녀성은 폐쇄가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찬가를 계속 읽어나가면 15절에서 우리는, 이 봉해진 우물에서 물이 나와 수많은 정원에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을 읽을 수 있으며, 5장 1절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과 미덕은 친구들은 배불리 먹고 쉬도록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봉해진 우물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 아니라 오히려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의 근원이며, 그 물은 몇몇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예수님 외에 육신으로는 다른 자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모성은 그녀가 살았던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그분의 부드러움과 지혜는 그분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모든 사람의 갈증을 해소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가족, 친구, 공동체 내에서의 일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에는 의도의 순수함과 큰 존경이 필요하지만 폐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덕과 은총의 선물, 무엇보다도 생명 자체의 선물은 세상에 봉헌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 전 파 에 서 도 예수님께서 물이라는 상징을 기꺼이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신자가 세례를 통해 받는 성령의 선물과 새롭게



태어남의 은총을 나타내시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씀을 분명히 언급하시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샘솟는 물을 약속하셨습니다(요한 4,14). 7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 온 사람들로 붐비는 성전에 계시는 동안, 당신의 말씀을 기꺼이 듣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약속을 새롭게 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AFTMAEOFH ‘그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요한 7,38) 그리고 복음서 저자는 즉시 다음과 같이 이를 설명합니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요한 7,39).

이 내용은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분의 몸짓과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생수가 성령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직 부활절의 새로운 신앙 안에서만 그들은 마침내 참으로 새로운 삶의 선물에 자신을 열 수 있는 용기를 찾았습니다.

둘째,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 아버지와 예수님의 친밀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도록 초대합니다. 이 친교는 부활절에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요한 19.34). 그 상처는 영원히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우리 각자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원천이 될 때까지, 우리는 언제나 그곳에 가서 물을 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두 번째 기록에서는 강 하나가 에덴동산에서 흘러나와 네 줄기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창 2,10).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땅은 마르고 생물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세상에서 그분의 영을 거두시면 모든 것이 시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물과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물의 오염과 부족은 가난한 사람들,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생명의 선물을 받았고 계속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물에 대한 갈증과 오염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모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빠르게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가족의 연대기

에콰돌- 제 12차 아드마 국가대회

쿰바야, 에콰돌 - 2023년 10월 - ADMA제12차 국가대회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쿰바야의 “도움이신 마리아” 영성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예수님의 성체성사는 마리아를 우리의 어머니이며 교사로 주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ADMA 세계 영적활성자 알렉산드로 구에바라 신부가 대회를 이끌었습니다. 3일간 개최된 이 대회는, 살레시오 가족의 한 구성원인 아드마를 위해, 형제애와 미사, 마리아 영성에 대한 강의로 복음화와 사목적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며 사명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에콰돌의 아드마는



8개 주에 현존하며 27개 센터와 총 845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회식에 참석한 에콰도르 살레시오회 관구장 마르셀로 파르판 신부는, 아드마가 어떻게 대중과 살레시오 가족의 영성에 필수적인 모임인지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 알렌한드로 구에바라 신부는 참된

신심과 지역 차원에서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의 전파를 위해 아드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임이 형제로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마리아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초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 33차 아드마 마리아 대회 - 주제 - “성소와 사명으로의 교육”

이탈리아 토리노 - 2023년 10월 - 8일에 “성소와 사명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제33차 마리아의 날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도움이신 마리아회(ADMA) 회원뿐 아니라 토리노 초등학교, 아레세(Arese)와 리구리아(Liguria)의 대규모 졸업생 그룹이 참여했다. 돈 보스코의 ‘9살 때의 꿈’을 주제로 엔리코 슈타지 신부의 지도에 따라, ‘안뜰’이 여전히 젊은이들과 하느님 사이의 특권적인 만남의 장소임이 강조되었으며, 발도코의 안뜰에서 기도와 개인 묵상, 묵주기도를 바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입회지원자들을 소개하고 이들의 삶과 신앙여정에 대해 나누었으며, 그들은 참가자들과 식별 여정에 대해 기쁘게 나누었다. 이날 행사는 엘니코 스타시 신부가 진행했으며, 로베르토 카렐리 신부와ADMA의 세계 영적활성자인 알렌한드로 구에바라 로드리게즈 신부가 미사를 공동 집전하는 것으로 마쳤다. 이날 23명의 입회지원자의 서약식이 있었다.



남아시아 살레시오 가족 대표 모임

남아시아 살레시오 가족 대표 모임은, 살레시오 가족의 일치를 도모하고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며, 성 요한 보스코의 열렬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공유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20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인도-디마푸르 관구(IND)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살레시오회(SDB),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회(FMA), 살레시오협력자회(SSCC), 도움이신 마리아회(ADMA) 돈 보스코 동문회(EX.DB), 도움이신 마리아 선교수녀회(MSMHC), 돈 보스코 재속 수녀회(VDB), 원죄 없으신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 교리문답 수녀회(SMI), 제자 수녀회(DISC), 돈 보스코의 방문 수녀회(VSDB), 돈 보스코 자원봉사회(CDB)의 살레시오가족(FS) 대표 39명이 모였다.



이 모임에는 살레시오 가족 총장 대리인 조안 루이스 플라야 신부(SDB), 살레시오 졸업생 담당이며 살레시오 협력자 세계 대표 도미니크 덕 남 수사(SDB), ADMA 세계 영적활성자 알렉산드로 구에바라(SDB), 살레시오 협력자회와 ADMA FMA 세계 대표인 레슬리 산디고

수녀(FMA), FMA살레시오 가족 담당 평의원 루크레지아 우리베 수녀(FMA) 그리고 인도-켄카타(INC) 관구장과 남아시아 살레시오 가족 담당자 요셉 파우리아 신부(SDB)가 참석했다.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 2024년 파티마(포르투갈).

상호 연대의 정신으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그룹의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 “연대 기금”이 토리노 프리마리아에 설립되었다.

받은 금액은 다양한 필요에 따라 쓰여지게 되며, 참가자 개인에 대한 별도의 요구는 없다.

모든 기부금은 ADMA 은행계좌로 송금

- (IBAN IT16 V030 6909 6061 0000 0130 575)

- 하거나 다음 링크

<https://www.admadonbosco.org/>의 지침을 따라 보낼 수 있다.

기부를 위해서, 또 기부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룹 대표는 다음의 주소로 편지를 보내 문의할 수 있다: adma@admadonbosco.org

“주님께서서는 기쁨으로 섬기는 자를 사랑하신다.”



내가 · 너에게
스승을 · 주겠다

도움이신 마리아 제9차 대회

파티마 2024년 8월 29일 - 9월 1일

등록이 시작됩니다

www.mariaauxiliadora2024.pt

월간 기도 지향

우리는 특별한 지향으로 전 세계 모든 Adma 회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번 12월에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 할 것입니다.



어머니, 우리의 이 간청을 받아들이소서.

바다의 별이시여, 전쟁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파선시키지 마소서.

새로운 계약의 퀘이신 당신께서, 화해의 길을 닦을 영감을 주소서.

“천국의 땅”이신 당신께서 하느님의 조화로움이 세상에 다시 오게 해주소서.

증오를 없애고, 복수심이 진정되게 하시며, 용서를 가르쳐 주소서.

전쟁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핵 위협으로부터 세상을 구하소서.

묵주기도의 여왕이시여, 우리 안에 기도와 사랑의 필요를 다시 일깨워 주소서.

당신은 인류 가족의 여왕이시니, 사람들에게 형제애의 길을 보여 주소서.

평화의 여왕이시여, 이 세상이 평화를 얻게 하소서.

기사와 사진 보내기

여러분이 수행하는 양성 모임, 도움이신 마리아 24일 기념, 봉사활동의 기사와 사진 제목과/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사(.doc 형식, 최대 1200자 공간 계산하지 않음)와 최대 2장의 사진을(jpg디지털 형식 및 너비 1000px 이상의 크기)

adma@admadonbosco.org 로 보냅니다. 이메일 “가족 연대기”의 제목과 텍스트에 저자의 자료를 표시하는 것 (이름, 성, 촬영 장소, 소속 Adma, 도시, 국가)은 필수적입니다.

보냄으로써, ADMA는 항상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사와 사진을 처리하고, 출판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미지는 편집진의 재량에 따라, <https://www.admadonbosco.org> 사이트 및/또는 다른 ADMA 출판물에 제목과 저자의 이름과 함께 발행될 수 있습니다.